

시·공간 초월…건축, 도시를 연결하다

‘광주건축도시문화제’

21~24일 광주시청 1층 시민홀

광주시 건축상·사진공모전 수상작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등 다채



올해 광주시 건축상 최우수작 사회공공부문 ‘광주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건축은 공간과 디자인, 미술 등 다양한 문화가 결합되는 종합 예술이다. 사람과 문화와 역사를 담아내는 공간이자 종합적인 콘텐츠이기도 하다.

건축을 원소로 하는 다양한 책과 작품, 방송 프로그램, 유튜브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그런 연유다. 특히 역사가 깊고 특유의 스토리가 있는 동서양 건축물을 탐방하고 이를 콘텐츠로 구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수준 높은 문화와 예술을 즐기려는 트렌드와 맞물려 이와 같은 건축에 대한 관심은 점차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과 공간의 응결체 건축을 조명하고 광주 건축의 현주소, 미래를 가늠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광주건축단체연합회(회장 김종원)가 주최하는 ‘광주건축도시문화제’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펼쳐진다. 연합회는 (사)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가 모인 단체다.

김종원 회장은 “이번 문화제는 광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건축이라는 창을 통해 바라보며 도시와 사람, 공간이 맺는 깊은 관계를 함께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며 “건축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도시문화제는 건축을 모티브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임으로써 건축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함께 즐거움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가회 김기준 회장은 “건축문화의 대중화를 비롯해 교류, 축제에 초점을 둔 도시문화제를 통해 건축이 곧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함께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올해 주제는 ‘건축, 시간과 공간-건축으로 연결하는 도시’. 건축을 시간과 공간의 응결체라는 관점과 도시는 곧 건축으로 연결된다는 의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 건축도시문화제에서는 ‘2025 자랑스런 광주건축인’으



비주거부문 최우수작 ‘양림 돌’.

로 양동협 건축사를 추대하고 ‘제29회 광주시 건축상 수상작품전’, ‘2025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수상작전’, 사진공모전 수상작 등 다양한 작품과 모형들을 만날 수 있다.

건축도시문화제에서는 ‘재미있는 도시 광주’를 주제로 한 사생대회 수상작도 만날 수 있다. 광주 소재 유치원생, 초등생을 대상으로 건축과 도시에 대한 생각을 담은 작품이 관객들을 맞는다. 사진 공모전에서는 지역 내 일상 속 건축과 도시, 공간 이야기를 담은 사진 수상작을 볼 수 있다.

광주·전남 지역 건축 전공학과 대학생들의 우수 작품을 만나는 ‘학생 우수 작품전’은 건축의 미래를 가능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전남대 건축학부 건축도시설계전공 조휘민의 ‘RE:FAB-

RIC.H’ 등 모두 13개 작품이 전시된다.

건축사 회원들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회원들의 우수 설계작품, 신축·리모델링 건축 등 우수한 작품이 전시된다.

국내외 우수건축가 작품전은 공간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탐구하며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자리다. 건축에 대한 철학, 가치 등을 다양한 시각으로 조명한 작품들이 비치된다.

건축사진가인 이동희 교수(순천대)가 프랑스에서 촬영한 인지도 높은 건축물에 담긴 미학적 특징도 살펴볼 수 있다.

이밖에 ‘학생들과 함께하는 건축 특강’, ‘건축·도시 포럼’도 예정돼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산, 기억의 풍경

정병하 개인전, 14일 도립도서관

산은 말이 없다. 그리고 언제나 그곳에 있다. 우직한 사람을 일컬어 ‘산 같다’고 한다. 믿을만 하고 듬직하기 때문이다.

정병하 작가에게 ‘산’은 “마음의 구조이자 기억의 풍경”이다. 내면에 각인된 산이 그에게 어떤 의미로 수렴되는지 가능성이 된다.

정 작가가 산을 모티브로 한 전시 ‘산, 색의 언어’를 연다. 14일까지 도립도서관 1층 남도화랑.

이번 전시에서 그는 색의 언어로 구현한 산의 조형적 이미지를 선보인다.

정 작가는 “산은 말없이 오랜 시간을 견디고, 나는 그 침묵을 색과 선으로 표현한다”며 “작품 속 산은 단순한 풍경이 아닌 마음의 구조이자 기억의 풍경이다”고 전했다.

‘Red Mountain I’은 단순화한 산을 표현한 것으로 가을철 만산홍엽의 풍경을 떠올리게 한다. 외관상 보이는 산이 푸른색이 아닌 붉은색인 것은 예술에 대한 열망, 삶에 대한 열정 등을 산에 투사한



‘Red Mountain I’

때문으로 보인다.

‘녹색의 향연’은 질푸른 풀밭에 등성등성 피어난 꽃들을 표현한 작품이다. 아늑히 펼쳐진 들판, 아스라이 펼쳐진 푸른 하늘은 평화롭기 그지없다. 저마다의 빛깔로 존재를 드러내는 알록달록한 꽃들은 미소를 짓게 한다.

정 작가는 “색은 나의 언어다”며 “붓끝에서 올라

색들이 산의 이야기를 말없이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작가는 목포대 미술학과와 전남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미술교사로 35년 재직 후 정년 퇴임했으며 한중미술국제교류 중국초대전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다. 현재 한국미협목포지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난 청춘예찬 공연의 모습.

〈서구문화센터 제공〉

성악과 앙상블이 빛어낸 영화 속 멜로디

‘포르투나’·‘아멜리앙상블’, 17일 서구문화센터 공연장

스크린을 수놓던 선율이 가을 밤의 공기를 물들인다. 성악과 앙상블이 빚어내는 하모니 속에서 영화와 드라마의 명장면이 눈앞에 펼쳐진다.

광주 서구문화센터는 오는 17일 오후 7시 2층 공연장에서 ‘청춘, 예술로 찬란하게’를 연다. 남성 성악자장단 ‘포르투나’와 관현악 5중주 ‘아멜리앙상블’이 함께 꾸미는 공연으로, 서구문화센터의 ‘청년예술인 공공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영화 ‘어바웃타임’의 OST ‘일 몬도(Il Mondo)’, ‘해리포터’ 시리즈의 ‘호그와트 행진곡(Hogwart’s March)’ 등 관객들에게 친숙한 곡들로 구성됐다. 포르투나의 풍성한 하모

니와 아멜리앙상블의 섬세한 연주가 어우러지며, 스크린 속 순간들이 무대 위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날 예정이다.

서구문화센터 문화교육팀 이서윤은 “이번 공연은 청년 예술인에게 창작 무대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선사하는 자리”라며 “문화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특별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청춘, 예술로 찬란하게’ 시리즈는 9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셋째 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총 3회 진행된다. 자세한 공연 정보와 사전 예약은 서구문화센터 홈페이지 또는 문화교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세월의 무게 버텨낸 아버지의 넋두리

광주희망문화컴퍼니 연극 ‘꼭두아비’…16일 영광 예술의전당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가족 안에서 가장 외로웠던 이름이 있다. 세월의 무게를 버텨낸 한 아버지의 넋두리가 웃음과 눈물로 얹히며 무대 위에 펼쳐진다.

광주희망문화컴퍼니가 제작한 연극 ‘꼭두아비’가 오는 16일 오후 3시와 7시 두 차례에 걸쳐 영광 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무대에 오른다. 아버지 세대의 희생과 고단한 삶을 호남식 넋두리로 풀어낸 코믹 드라마로, 한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화해를 통해 ‘돈’이라는 현실적 욕망과 인간의 존엄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되묻는다.

극은 평생 돈벌이에 몰두해온 자린고비 아버지 전석두가 죽음을 앞두고 전 재산을 고향 대학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된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자식들은 아버지의 결정을 돌이키려 하지만 그의 뜻은 요지부동이다. 애원과 회유, 심지어 황혼이혼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소동 속에서 가족의 민낯이 드러난다. 그러나 그 끝에서 남는 것은 결국 인간으로서의 품격,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다.

웃음과 풍자가 오가는 무대 위에서 관객은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 숨어 있는 애증과 사랑을 함께 느끼게 된다.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지역적 정서와 해학으로 풀어내며 아버지라는 존재를 따뜻한 시선으로 비춘다.

특히 이번 공연은 배우이자 연출가 선동혁의 참여로 주목받고 있다. 연기 인생 50년을 맞은 그는 드라마 ‘용의 눈물’, ‘정도전’ 등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으며, 2022년 칸독립영화제에서 영화 ‘그대 어이 가리’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이번 작품에서 선동혁은 아버지 전석두 역을 맡아 세월의 굴레 속에서도 가족을 품으려는 한 인간의 진심을 그려낼 예정이다.

이효주, 전은주, 도재철, 안도운, 전선영, 김민성 등 지역 연극인들도 대거 출연해 무대에 활력을 더한다.

희망문화컴퍼니 임준형 대표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욕망과 갈등을 통해 돈의 가치보다 더 소중한 인간의 존엄을 되새기고 싶었다”며 “공연이 끝나면 관객이 가족의 의미와 따뜻함을 다시 느



연극 ‘꼭두아비’에 출연하는 선동혁 배우 이미지 컷. 〈광주희망문화컴퍼니 제공〉

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관람료 일반 1만원·군민 3000원·학생 1000원, 영광군청 홈페이지·티켓링크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